

중 합 토 론

■ 사 회 : 이 재 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7중재위원)

종 합 토 론

이재진(사회자)

간단하게 마무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C미래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장태영 판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올 여름 저희 회사에서 국내 유명 아이돌을 모델로 3D 아바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당시 계약 내용 중에 초상권 부분은 있었으나 아바타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바타 제작은 아예 그 사람의 얼굴을 3D 스캔하는 방식과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D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초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아 몇 분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아바타가 제작되어 누가 봐도 그 아이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그리게 되면, 누군지는 분명히 알지만 99% 동일인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아바타의 권리가 초상권 계약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손으로 그린 아바타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어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태영(세션 1 발제자)

일단 질문의 초점은 그림 묘사를 한 아바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 저작권은 만드신 분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만, 초상권 내지 초상영리권과 관련해 이 아바타가 당해 계약에 포섭되느냐 아니냐는 계약

의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델링한 99% 동일한 그림을 활용하셨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델링한 그림은 흡사하기 때문에, 그 아이돌임을 누구나 알 수 있어 초상독립성, 피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사자와의 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사회자)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요?

배재만(연합뉴스 기자)

질문보다는 현업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 내용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상권에 대한 이해, 인격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때마다 법률가나 중재위원회에서는 이익형량의 논의를 할 때 반대쪽, 즉 언론의 입장을 잘 생각해주시지 않으셔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익형량 시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알권리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언론 현장에서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합뉴스는 통신사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보다 더욱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사에 게시된 사진과 관련해 보통 항의를 하시는 분들의 주된 초점은 댓글입니다. 사진 촬영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공개된 사진에 달린 댓글의 인신공격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기자들에게 초상권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촬영 대상에게 미리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의를 한 분들이 정작 나중에 가서는 항의

를 하셔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혼합니다. 현장의 입장에서는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라는 것이 다소 뜬금 없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시적 동의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사인까지 받아야지 완벽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동의를 입증해 줄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절차가 감경 요소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동의의 범위를 이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현영주 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회 현장에서 사회자가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를 듣고 모두가 동의했구나 생각하지만 참가자 개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상권은 물론 중요하지만,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뉴스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초상권에 대한 토론회를 하셨으니 알권리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사회자)

추가해 질문해주실 분이 계신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석형(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열띤 것을 넘어 치열했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초상권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상권 침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실무자들이 초

상권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조정중재 과정에 초상권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언론 취재 현장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초상권 동의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상권에 대해 깊이 고려하면서 최고의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면 초상권 침해를 다소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 내용이 전파와 확산을 통해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발제,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경청하시면서 토론회를 다채롭고 심도 있게 만들어주신 언론계 분들을 비롯한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사회자)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이고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